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999년 4월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경기 및 산업생산
2. 민간소비
3. 투자
4. 수출입
5. 물가
6. 통화·금융

제2장 해외경제

1. 성장
2. 원자재가격
3. 국제금리·환율

제3장 99년 경제전망

1. 성장 및 고용
2. 물가
3. 수출입 및 국제수지
4. 금리 및 환율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문제의 제기
2. 기업의 재무구조 관련 구조조정정책의 주요내용과 거시경제효과
3. 대응방안

<부록>

1. 경제정책정보
2. 주요경제통계

제 1장

국내경제동향

1. 경기 및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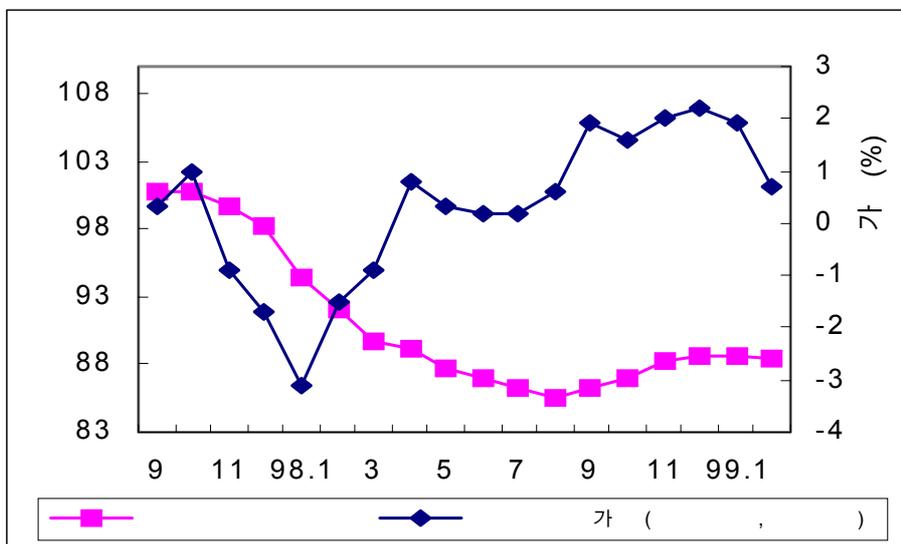
■ 99년에 들어 경기관련 각종지표들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음.

-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 해 9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단 금년 2월중 전월비 0.2P하락한 것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하고 있고, 선행지수도 지난 해 4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경기종합지수의 움직임이 호조.

최근 경기종합지수의 추이

	98											99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동행지수순환변동치	89.7	89.2	87.8	87.0	86.2	85.6	86.3	87.0	88.3	88.6	88.7	88.5	
선행지수 ¹⁾	-0.9	0.8	0.3	0.2	0.2	0.6	1.9	1.6	2.0	2.2	1.9	0.7	

주: 1) 계절조정지수의 전월비 증가율(%)



- 또한 산업생산이 지난 해 11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출하도 올해 들어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산업활동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산업생산 및 가동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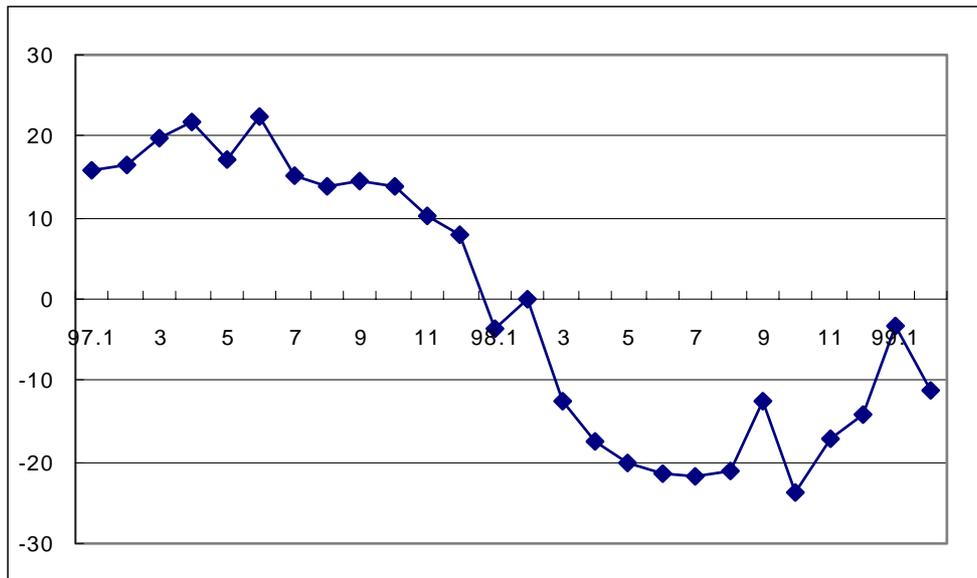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주: 1) 기말기준

	96	97	98				99	
	연간	연간	상반기	3/4	4/4	연간	1월	2월
생산	8.7	5.3	-9.7	-9.5	-1.6	-7.3	14.8	4.0
출하	8.9	6.8	-10.5	-9.6	-2.2	-7.1	13.6	6.6
내수	7.1	1.2	-25.2	-25.4	-18.5	-23.0	6.5	2.5
수출	14.0	22.2	27.5	24.4	30.2	28.5	24.7	12.3
재고 ¹⁾	16.8	5.2	-7.6	-10.9	-17.3	-17.3	-16.9	-17.9
평균가동률	80.8	79.0	67.2	66.7	69.9	68.1	69.6	69.9

· 재고증가율이 여전히 높으나 출하증가율이 증가세로 반전됨에 따라 출하증가율과 재고감소율간의 격차가 축소되어 재고조정도 마무리 단계에 온 것으로 판단됨. 이는 향후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 주는 것임.

(출하증가율-재고감소율)의 격차



· 금리, 환율 등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부도율과 부도업체수의 감소추세가 계속됨.

최근 부도 동향

	97년	98년				9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전국어음부도율(%)	0.40	0.54	0.43	0.41	0.17	0.38	0.11
전국부도업체수(개)	17,168	9,449	6,357	4,221	2,801	22,828	1,932
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배)	3.4	1.5	2.3	3.3	5.5	2.6	10.1

■ 그러나 지금의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진입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

요인이 있음.

- 최근 실물경기의 회복이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업종의 호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부문은 전후방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아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지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함.

반도체 제외시 산업생산 증가율 비교

	99년 1월	99년 2월
반도체 제외시 생산증가율(원계열)	8.4(14.8)	-1.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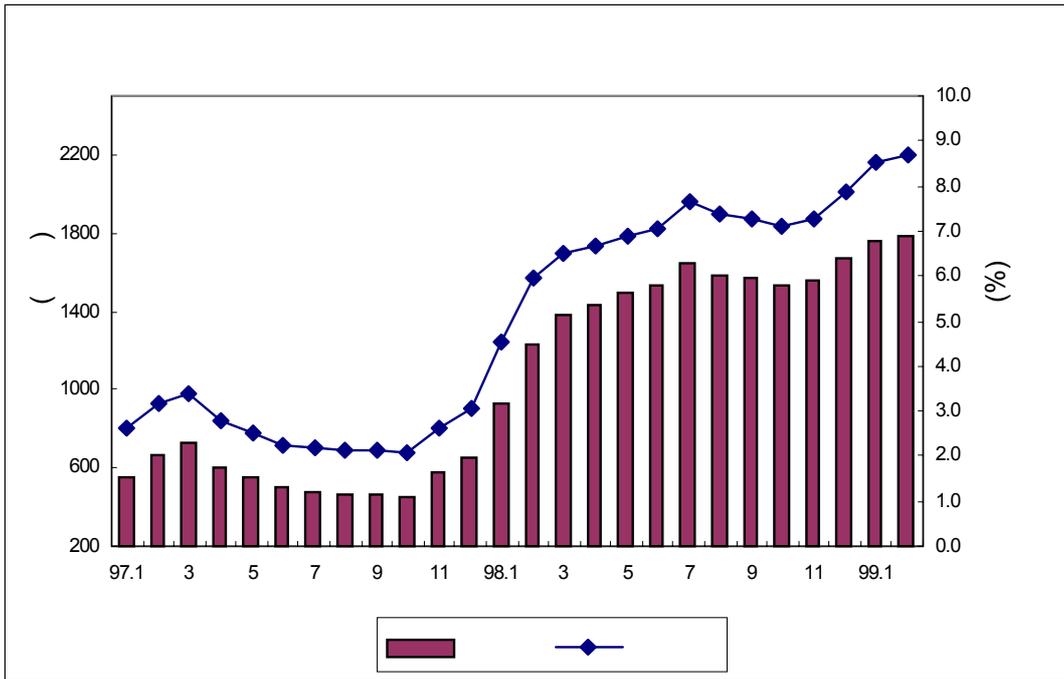
반도체 산업 비중 추이

	1991년	1993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제조업생산 中	4.6	5.7	8.6	10.6	13.6	21.0
총수출 中	7.9	8.5	17.7	13.8	12.8	12.9

- 민간투자자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소비증가가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관건일 수밖에 없음. 그러나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작업으로 인해 실업자수는 178만명을 이미 넘어섰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실제 실업인구는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소비증가는 제약을 받을 것임.

최근 실업률 추이

	97	98				99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업률(%)	2.6	5.7	6.9	7.4	7.4	6.8	8.5	8.7
실업자(천명)	556	1,182	1,485	1,600	1,586	1,463	1,762	1,785



- 이외에도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상승추세에 있긴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회복상태를 지속하고 평균가동률이 70%를 하회하고 있는 것과 우리 경제의 성장견인차인 수출의 증가율이 1/4분기 마이너스를 보인 점 등은 본격적인 경기회복국면으로의 조기진입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보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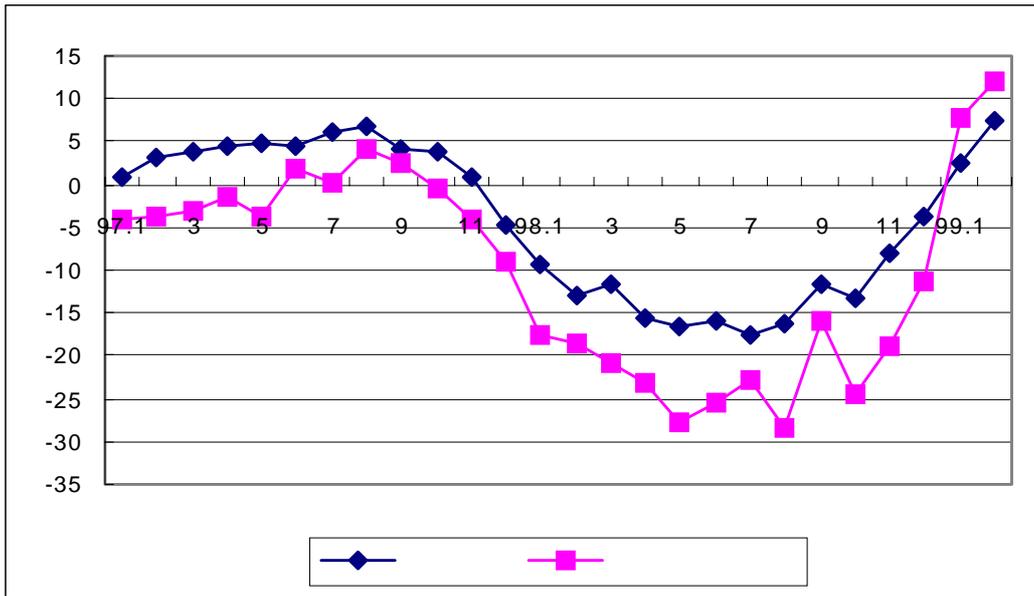
2. 민간소비

- 99년 들어 도소매 판매, 내수용소비재출하 등 소비관련지표들이 증가세로 반전됨.

최근 소비지표 동향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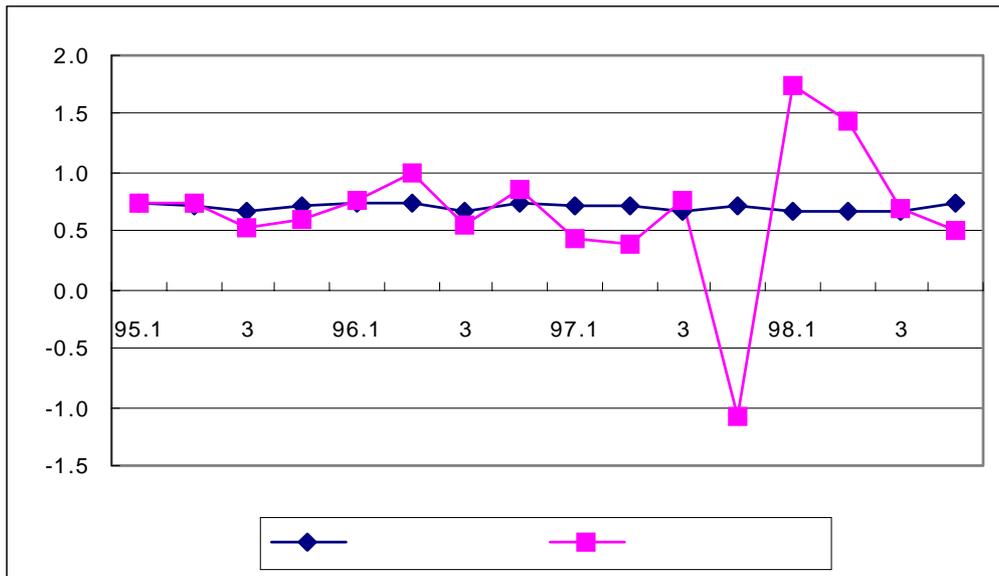
	1997	1998					1999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도소매 판매	3.2	-10.4	-15.8	-15.1	-8.3	-12.7	2.6	7.3
도매	3.2	-5.9	-13.2	-10.1	-4.6	-8.3	-0.5	3.8
소매	4.5	-9.9	-12.2	-13.9	-9.2	-11.1	0.3	5.9
자동차·연료	-0.7	-29.7	-33.9	-36.2	-21.6	-34.3	36.2	39.4
내수용소비재출하	-1.5	-19.7	-26.3	-22.3	-18.4	-21.4	7.8	11.9
내구재	5.0	-25.7	-35.0	-32.8	-21.5	-28.5	32.6	37.7
비내구재	-4.4	-17.1	-21.7	-17.2	-16.9	-17.9	-0.2	2.2



■ 이처럼 소비가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는

- 외환 및 금융시장이 크게 안정되고 실물경기회복에 대한 조짐이 보이면서 지난해 외환위기로 인해 과도하게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정상상태로 회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는 급격하게 낮아졌던 한계소비성향이 3/4분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모습에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계소비성향과 평균소비성향



- 그러나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3%정도의 완만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는 임금삭감, 실업증가, 고용불안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비가 감소한 계층과 자산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증대에 힘입어 실질소비가 증가한 계층간의 이른바 소비 양극화현상 때문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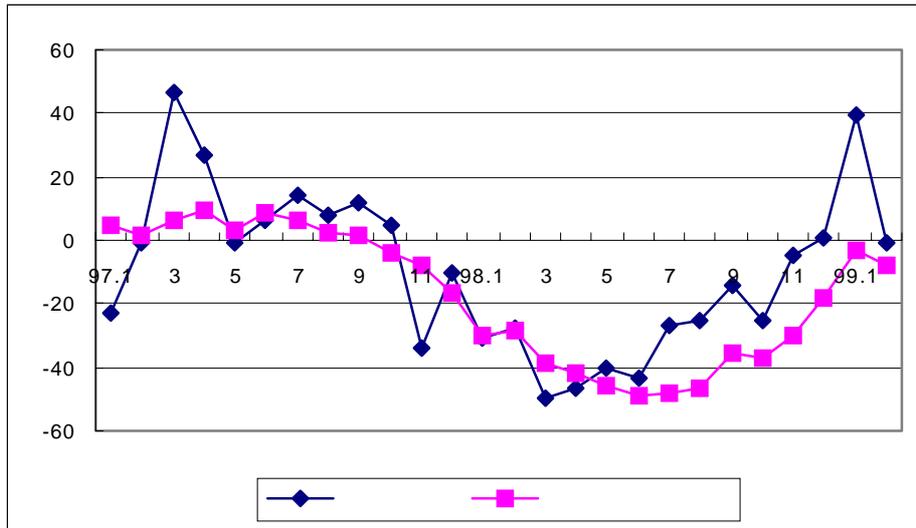
3. 투자

- 설비투자지표들이 작년의 급감세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부진한 모습.
- 작년 12월 증가세로 반전된 국내기계수주는 1월중에는 39.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월중 다시 1.0%감소함.
- 기계류수입액도 2월중 다시 마이너스로 반전됨.
- 설비용기계류 내수출하는 1월과 2월중 -3.0%, -8.1%를 보이며 감소폭이 한 자리수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부진한 모습.

최근 설비투자 지표 동향

(전년동기비,%)

	1997	1998				1999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국내기계수주	3.3	-38.9	-43.8	-22.2	-10.9	-30.5	39.6	-1.0
공공	-2.5	-66.3	-63.5	-14.1	-9.8	-45.1	6.1	-25.9
민간	4.6	-30.3	-39.5	-23.6	-11.1	-27.3	44.4	3.4
기계류수입액	-22.8	-52.9	-57.4	-55.2	-44.0	-52.9	7.3	-12.7
설비용기계류내수출하	0.8	-32.9	-45.4	-43.7	-28.8	-38.0	-3.0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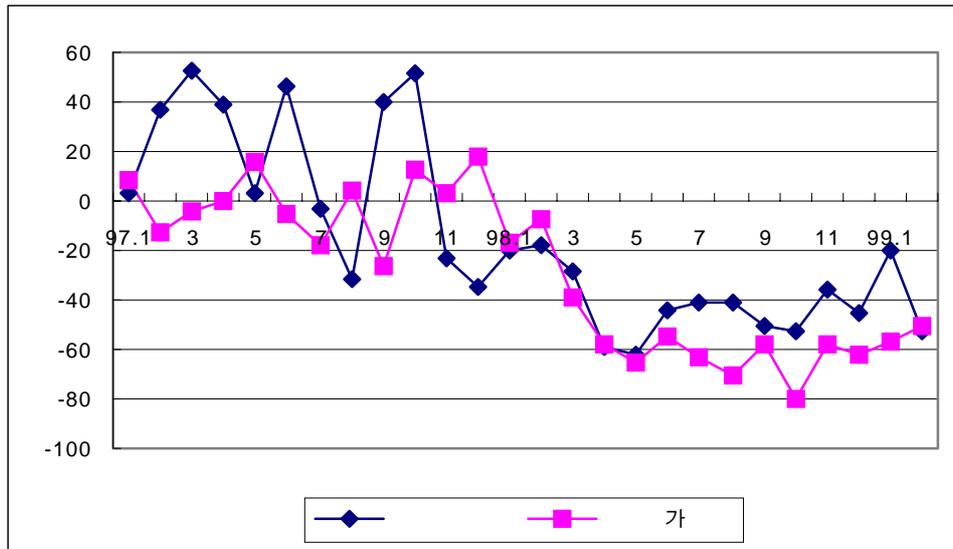
■ 재정지출의 조기집행방침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는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국내건설수주는 1월과 2월에 각각 20.5%, 52.2% 감소하면서 작년의 대폭 감소세가 이어짐.
- 건축허가면적도 50%이상의 감소세가 지속됨.
- 건축허가면적중 공업용은 증가세로 반전되었는데 이는 지난 해 후반부터 제조업중심의 산업활동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어 온 데 주로 기인.

최근 건설투자 지표 동향

(전년동기비,%)

	1997년	1998년				199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국내건설수주	5.4	-23.4	-53.4	-44.8	-44.9	-42.5	-20.5	-52.2
공공	7.6	-11.0	-13.8	-8.4	-36.7	-21.4	-11.7	-51.5
민간	-5.9	-41.0	-64.7	-65.7	-56.5	-57.6	-28.2	-52.7
건축허가면적	-0.4	-22.9	-59.6	-63.8	-66.1	-55.0	-56.4	-50.5
공업용	-26.2	-67.8	-72.9	-69.4	-60.9	-68.2	2.2	30.0



4. 수출입

-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하는 반면 수입이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큰 폭(약 37억달러)으로 축소됨.

수출입 총괄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비(%)

	97년	98년		99년			
	연간	1/4	연간	1월	2월	3월	1/4
경상수지	-81.7	108.3	400.4	19.1	23.4	24.5	67.0
무역수지(통관)	-84.5	85.8	390.3	6.5	17.8	24.3	48.6
수출(통관)	1,361.6	322.3	1,323.1	92.8	94.2	117.8	304.8
증가율	5.0	8.4	-2.8	3.1	-16.0	-1.9	-5.4
수입(통관)	1,446.2	236.6	932.8	86.3	76.4	93.5	256.2
증가율	-3.8	-36.1	-35.5	15.4	-3.1	12.8	8.3

주: 99년 3월 경상수지는 추정치.

- 1/4분기중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98년 1/4분기의 21억달러 금수출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

모집금 수출 등 특수요인 제거시 수출증가율

- 수입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본재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임. 이는 지난 해 과도하게 위축된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주로 중간재와 소모품부품을 중심으로 한 자본재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임.

용도별 수입

단위 : 백만달러,전년동기비(%)

	97년 연간		98년 연간		99년 1월		2월		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원자재	76,062	2.2	50,174	-34.0	4,586	6.9	3,940	-7.0	8,520	-0.1
자본재	53,097	-10.3	33,909	-36.1	3,234	31.7	2,992	3.6	6,266	16.5
소비재	15,457	-7.4	9,199	-40.5	814	10.4	708	-7.0	1,523	1.6

최근 주요 자본재 품목별 수입

단위 : 백만달러,전년동기비(%)

	98년 연간		99년 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자부품	16,089	-9.3	3,301	38.7
일반기계	6,519	-51.6	951	-16.0
정밀기계	3,237	-45.5	437	-14.6
수송기계	1,092	-49.9	192	13.3
항공기 및 동부품	880	-48.4	149	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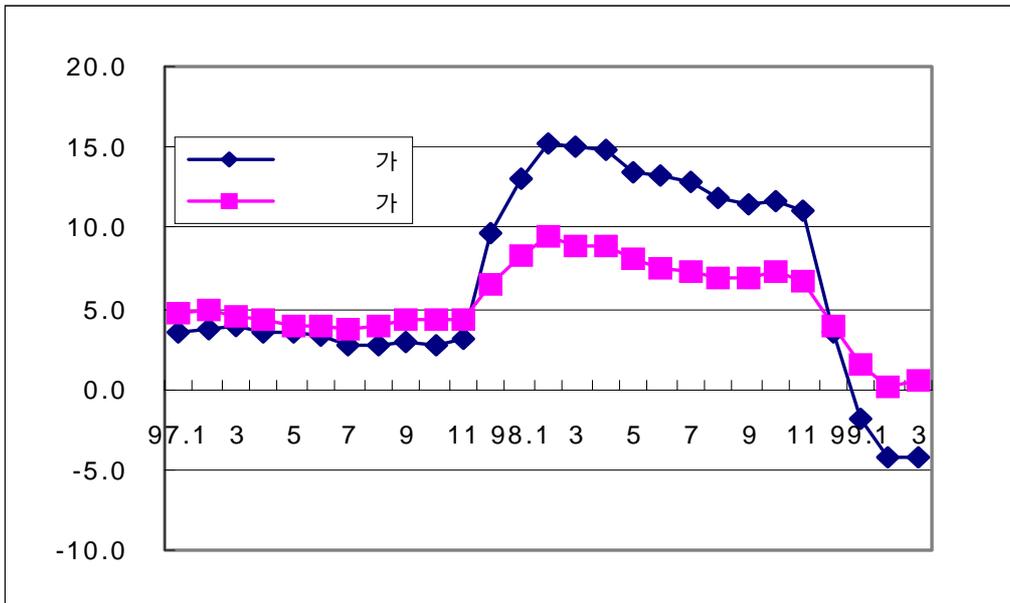
	1999년			
	1월	2월	3월	1/4분기
모집금 수출(억달러)	6	12	3	21
유휴설비수출(억달러)	2.5	2.5	2.5	7.5
특수요인제거시 수출증가율(%)	13.9	-3.6	2.8	3.7

5. 물가

- 1/4분기중 물가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에 비해 0.7% 소폭 상승에 그치고 생산자물가는 3.5%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크게 낮아짐.

· 이는 비교시점인 98년 1/4분기중의 물가수준이 높았던 데에 대한 반사효과 외에도 환율안정, 저유가, 경기부진 등으로 인한 비용과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았던 데 기인.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 부문별로는 농축수산부문이 작황부진, 저장 농축수산물 출회부진의 영향으로 그리고 공공서비스부문은 상수도료, 전철, 납입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공산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이 환율안정과 수요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임.

부문별 물가

단위 : 전년동기비(%)

	1997년	1998년		1999년			
	연간	1/4	연간	1월	2월	3월	1/4
소비자물가	4.5	8.9	7.5	1.5	0.2	0.5	0.7
농축수산물	3.8	5.6	6.0	7.5	10.1	10.2	9.3
공산품	4.3	12.8	11.2	0.4	-2.4	-0.7	-0.9
공공요금	5.1	9.8	9.5	4.7	2.8	2.5	3.4
개인서비스	5.3	7.7	5.3	-0.4	-1.3	-1.8	-1.1
생산자물가	3.9	14.4	12.2	-1.8	-4.3	-4.3	-3.5
농림수산물	1.9	-1.1	3.9	13.8	19.1	17.0	16.6
공산품	3.4	17.2	14.5	-2.8	-2.8	-6.4	-5.4
서비스	5.4	10.8	8.1	-2.7	-3.8	-4.0	-3.5

6. 통화·금융

- 2월 이후 본원통화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통화공급의 확대추세가 지속됨.

주요 통화증가율 추이

단위: 평잔, 전년동기대비(%)

	97년	98년							99년		
	연간	3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1월	2월	3월
본원통화	-15.0	-4.7	-7.5	-13.2	-0.9	-5.7	-6.6	-7.2	-8.7	4.4	7.2
M2	19.2	13.7	18.1	21.1	26.4	26.1	22.0	19.1	26.6	30.0	33.6
MCT	15.3	9.5	8.2	5.4	6.1	5.2	3.0	7.6	3.6	5.3	6.9
M3	16.3	14.5	14.2	13.1	13.5	13.1	12.4	12.8	13.1	-	-

- 이에따라 시중 실세금리지표도 하향안정세를 지속함.

주요 시장금리 추이(기말기준)

	97년	98년					99년			
	12월	6월	8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4.20	
콜(익일물,%)	31.32	14.41	8.51	7.08	6.48	6.00	5.04	4.85	4.74	
CP(91일물,%)	40.77	16.99	10.91	10.78	8.06	7.25	7.05	7.02	6.27	
국고채(3년물,%)	15.00	14.00	11.30	11.50	6.95	7.05	6.96	6.50	6.04	
회사채(3년물,%)	28.98	16.00	11.70	11.90	8.00	8.13	8.65	8.10	7.23	

- 원/달러 환율은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1,200₩/\$이하로 다시 절상추세를 보임.

원화환율(기말증가 기준)추이

	96년	97년	98년	99년				98말대비(%)
	12월	12월	12월	1월	2월	3월	4.20	절상(+),절하(-)
₩/US\$	844.90	1,695.00	1,204.00	1,175.00	1,223.00	1,227.0	1,190.0	1.2
₩/100¥	726.51	1,291.36	1,059.91	1,010.53	1,012.84	1,017.8	1,006.5	4.0

제 2장 해외경제

1. 성장

- 세계경제성장률은 98년과 유사한 2%내외에 그칠 전망
 - 미국경제는 2000년 상반기까지 강세속에 안착(soft landing)할 것으로 보이나 EU는 성장둔화 예상
 - 일본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 아시아지역은 외환위기로부터 점진적 회복이 기대되나 중남미국가들은 침체지속 전망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1997 ¹⁾	1998			1999		
		IMF	OECD	WEFA	IMF	OECD	WEFA
세계경제 성장률	4.2	2.2	2.0	1.5	2.2	2.1	1.7
선진국 ²⁾	3.2	2.0	2.2	2.1	1.6	1.7	1.7
미국	3.9	3.6	3.5	3.7	1.8	1.5	2.4
일본	1.4	-2.8	-2.6	-2.9	-0.5	0.2	-1.3
EU	2.7	2.8	2.8	2.8	2.2	2.2	2.0
아시아 신흥공업국 ³⁾	6.0	-2.6	-	-4.4	0.5	-	0.7
체제전환국	1.9	-0.8	-	-0.8	-1.9	-	-0.5
세계교역 성장률 ⁴⁾	9.9	3.3	4.6	3.0	4.4	5.3	3.4

주: 1) 실적치는 IMF 기준

2) 실적치와 IMF 전망치에는 NIEs와 이스라엘 등 5개국 포함

3) WEFA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등 8개국 기준

4) 수출입물량평균 기준, WEFA의 경우 수출물량 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8.12.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9.1/4

OECD, OECD Economic Outlook, 1998.12

가. 미국

- 미국경제는 올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이나 작년과 비교할 때 성장률의 둔화와 물가상승압력 증대 예상.
 - 실질 GDP 성장률은 2.5-3%선으로 둔화되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전년보다 상승된 2%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이는 그 동안 지속적인 팽창세를 유지해온 소비와 투자기출의 약세전환 전망에 기인.

미국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

	1997	1998년			1999년	
		연간	3/4	4/4	1월	2월
실질GDP 성장률	3.9	3.9	3.7	6.0
경상수지(억달러)	-1,552	-2,334	-657	-638
소비자 물가상승률	2.3	1.6	1.6	1.5	1.7	1.6

자료: 미 연준, IMF, 미 상무국

나. 일본

- 일본 경제는 1992년 이후 1996년(5.1% 성장)을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내수 부진으로 장기침체국면을 지속

일본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

	1997	1998년			1999년	
		연간	3/4	4/4	1월	2월
실질GDP 성장률	1.4	-2.8	-1.2	-3.2
경상수지(억엔)	114,363	158,608	44,477	40,002	8,075	..
소비자 물가상승률	1.8	0.6	-0.2	0.5	0.2	-0.1

자료: 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

-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2.8% 성장하여 1955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성장을 기록. 이에 따라 실업률은 1992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금년 1월에는 전후 최고수준인 4.4% 기록

- 경상수지는 1996년중 내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로 흑자규모가 일시 축소되었으나 1997년 이후 수입 부진에 따라 다시 흑자폭이 대폭 확대

- 지난해에는 수출이 0.6% 감소한 데 비해 수입은 10.5% 감소

다. EU

- 지난해 3·4분기까지 비교적 호조를 보였던 유로지역(EMU 11개국) 경제는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4·4분기 들어 성장률이 0.8%(전기대비 연율, 이하 동일)로 급격히 둔화

- 특히 4·4분기중 독일과 이탈리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그러나 유로지역 경제는 금년 1·4분기부터 저금리와 물가안정에 따른 소비증가에 힘입어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전망
 - ECB(EU 중앙은행)는 4월, 금리인하를 발표, 스위스를 비롯한 각국의 금리인하를 촉발
- 유로지역의 지난해 4·4분기중 상품수지는 수출감소로 흑자폭이 크게 축소
 - 아시아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4분기 들어 둔화되기 시작한 수출이 4·4분기에는 감소세로 전환

2. 원자재 가격

- 산유국의 추가 감산합의가 지속되는 한 국제원유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

유가 및 원자재 가격

	1997	1998	1999			
			1월	2월	3/19	3/26
<현물유가>						
WTI(\$/배럴)	17.60	12.14	12.78	12.27	15.23	16.13
Dubai(\$/배럴)	15.21	10.46	11.10	10.33	13.15	13.93
<기타 원자재가격>						
옥수수(센트/부셸)	265.0	213.5	214.5	204.5	225.8	232.3
소맥(센트/부셸)	325.8	276.3	275.5	237.3	268.0	289.0
동(\$/MT)	1,712.5	1,455.5	1,405.5	1,378.5	1,369.0	1,426.5
알루미늄(\$/MT)	1,524.0	1,237.5	1,198.0	1,174.5	1,228.5	1,236.5

자료: 한국은행

- 제107차 OPEC 총회(3/23)에서 주요 산유국 회동(일명 헤이그 협정)에서 합의된 추가 감산안이 공식 승인됨
- 또한 非OPEC 국가인 멕시코, 오만, 노르웨이도 감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러시아는 금년 2·4분기중 원유 수출물량을 일평균 10만배럴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

3. 국제금리, 환율

- 미국의 장단기 시장금리는 연준의 현 금리정책기조 지속에 따라 당분간 대체로 현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그린스펀 연준의장은 미국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뚜렷한 인플레이션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함에 따라 미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

국제금리

	1997	1998	1999			
			1월	2월	3/19	3/26
<미국 국내금리>						
재할인율	5.00	4.50	4.50	4.50	4.50	4.50
단기채정증권	5.23	4.47	4.47	4.69	4.51	4.52
장기국채	6.97	5.10	5.09	5.58	5.55	5.59
<여타 주요국 금리>						
일본 재할인율	0.50	0.50	0.50	0.50	0.50	0.50
독일 재할인율*	2.50	2.50				
영국 기준금리	7.25	6.25	6.00	5.50	5.50	5.50
<유로시장 금리>						
유로 달러	5.81	5.63	4.97	5.03	5.00	5.00
유로 엔	1.00	0.63	0.48	0.27	0.19	0.18
유로 파운드	7.63	6.26	5.82	5.46	5.36	5.34

자료: 한국은행

*: 1999년부터 유럽중앙은행으로 통화정책이 이양됨에 따라 폐지

- 유로화 금리는 ECB가 EMU 출범 이후 정책금리를 변경하지 않고 금리인하 발표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물가안정심리가 확산되면서 장·단기 금리 모두 안정세 유지
- 금리는 일본은행의 저금리정책과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수요 저조 등에 따라 큰 폭의 하락세 지속
- 미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시현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고연방 공습이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자산으로서의 미 달러화 수요가 증대되고 원유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대규모 원유수입국인 일본의 경기회복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
 - 또한 미국 경제가 호황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유로지역 경제성장은 둔화되었기 때문임

동남아시아 각국 환율

	96.12	97.12	98.12	99.1	99.2	99.3/26
US\$/SDR	1.4352	1.3493	1.4080	1.3898	1.3656	1.3615
¥/US\$	116.00	129.94	115.20	115.95	120.29	118.72
DM/US\$	1.5556	1.7921	1.6687	1.7205	1.7737	-
US\$/£	1.6909	1.6551	1.6338	1.6436	1.6046	1.6215
FFr/US\$	5.2007	5.9975	5.9900	5.7702	5.9486	-

자료: 한국은행

제 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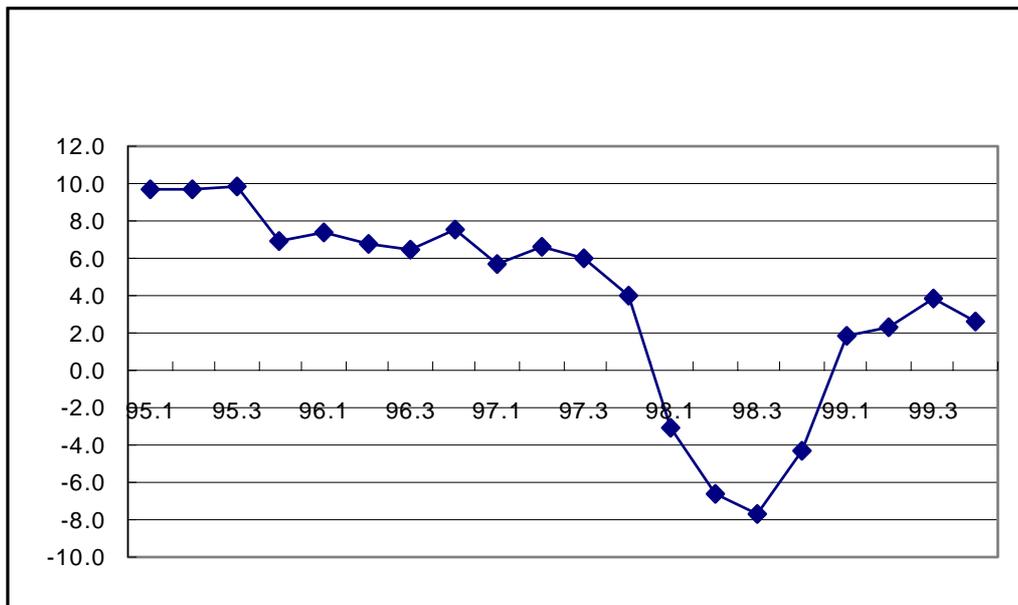
99년 경제전망

I. 성장 및 고용

— 98년중 사상최저의 경제성장률(-5.8%)을 기록하였으나 올 들어 1/4분기중 3%내외(추정성장률 2.7%)의 플러스(+)성장으로 반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간으로도 3%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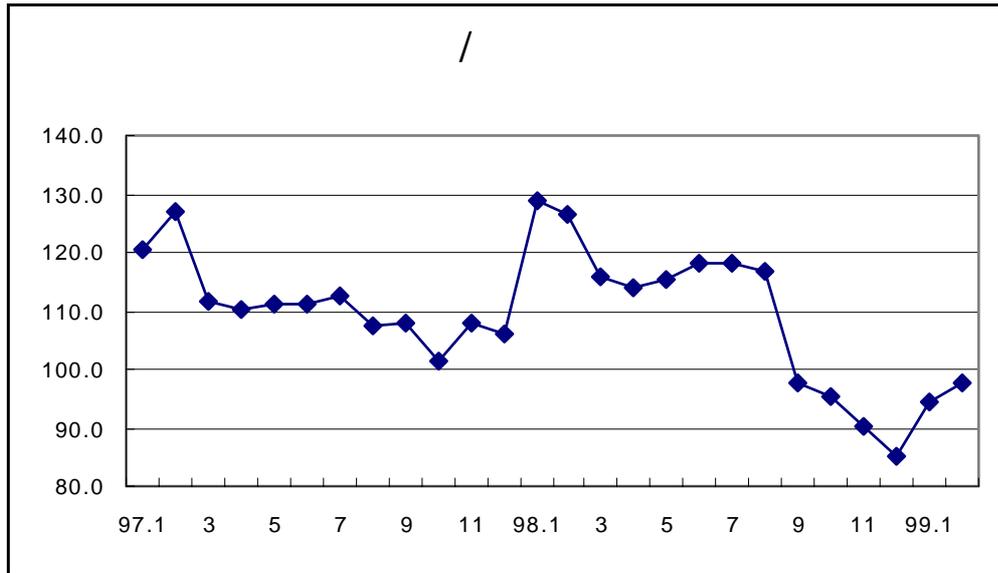
○ 1/4분기중 성장률은 물량기준 수출이 소폭이나마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국내소비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2.7%내외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감소하던 전분기대비 성장률도 증가추세로 반전함으로써 경기저점을 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 추이



- 1/4분기중 수요증가세가 현저해졌으나 여전히 재고감소율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재고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반영함. 다만, 재고/출하비율로 볼 때, 제조업체의 재고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재고/출하비율 추이



* 재고/출하비율=(재고지수/출하지수)*100

—산업활동이 부진한 가운데 각 부문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1/4분기중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대를 기록함. 생산활동의 증가와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증대로 고용증가가 예상되나 동시에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실업률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구조조정 노력의 가시적 결과는 상반기이후 본격화될 것임에 비추어 상반기 중 실업자수가 최대에 이를 전망

- 특히 노사간 단체협상이 본격화하고 신규취업이 부진할 상반기 중 실업자수의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하반기중 일단락되더라도 국내외 수요부진과 실업증가로 인한 실물부문의 위축이 99년 중에도 현저히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방어적 대출자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99년 분기별 거시경제전망

	1998년	1999년				2000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
국내 총생산	-5.8	2.5	2.9	3.3	3.4	3.0	3.5
(제조업)	-7.2	6.0	6.3	6.4	5.7	6.1	4.9
총소비	-8.2	2.7	2.6	2.8	3.1	2.8	2.9
민간소비	-9.6	3.7	3.7	4.2	4.4	4.0	3.1
고정자본형성	-21.6	-5.9	-6.0	-6.3	0.1	-4.4	2.4
설비투자	-38.3	3.3	1.8	-6.9	-3.2	-1.3	2.7
건설투자	-10.2	-11.1	-9.4	-6.0	1.5	-5.9	2.2
생산자 물가	12.2	-3.5	-1.4	2.2	2.9	0.0	2.5
소비자 물가	7.6	0.8	1.6	2.4	3.5	2.1	2.7
경상수지	400.4	66.9	60.5	62.3	61.1	250.9	207.8
상품수지	411.6	69.1	65.2	69.6	70.7	274.6	246.9
수출	1318.1	316.1	324.0	326.7	343.6	1310.4	1375.9
증가율 (%)	-4.9	-3.5	-5.5	4.8	2.4	-0.6	5.0
수입	906.4	247.0	258.8	257.1	272.9	1035.8	1129.0
증가율 (%)	-36.1	7.1	12.6	23.4	14.9	14.3	9.0
서비스, 소득 & 이전	-11.3	-2.1	-4.7	-7.3	-9.6	-23.7	-39.1
원화환율(기말기준)	1204.0	1227.0	1200.0	1190.0	1180.0	1180.0	1150.0

—최종수요 부문별로 보면, 98년중 지속되었던 생산감소세가 99년중 증가세로 반전하고 민간소비를 비롯한 일부 수요부문은 완만한 증가세로의 전환이 기대됨. 그러나 연간으로는 민간소비와 재고를 제외한 최종수요부문의 성장기여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권인에 의한 본격적인 경기회복국면은 2000년 이후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 1/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하였던 수출(통관기준, 5.4%감소)은 99년중 98년 실적과 비슷한 1,320억 달러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되고 완만하나마 원화의 절상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단가는 소폭의 하락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단가하락세의 둔화로 물량기준 수출은 98년중 약16%수준에서 99년중에는 4%내외로 둔화될 전망.

* 아시아 통화위기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경제성장의 둔화와 남미경제의 침체조짐 그리고 일본경제의 회복지연 등이 향후 수출시장여건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음

○ 소비부문은 실질임금의 감소와 고용불안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거나 자산시장이 회복되고 구조조정과 경기추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다소 안정됨으로써 99년중 완만한 소비지출의 회복세가 예상됨.

○ 설비투자는 내외수요의 현저한 회복전망이 불투명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노력이 99년중 집중됨에 따라 99년중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산업은행이 조사한 「99년 산업설비투자전망」에 따르면, 올해 기업의 설비투자규모가 작년보다 4.7%가 줄어들 전망. 부문별로는 비제조업이 2.2% 늘고 제조업이 11.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부문의 투자부진이 계속될 전망.

* 투자를 선도해 왔던 5대기업의 경우, 99년말까지 부채비율 200% 달성을 위한 기업의 현금흐름상 투자를 늘리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64대 기업들도 워크아웃(Work-out)대상기업이 적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함에 따라 투자여력 약화.

*본원의 분석에 의하면, 99년말 또는 2000년 3월까지로 예정된 각종 기업구조조정의 엄격하고도 무리한 추진은 기업의 유동성 제약을 가중시켜 설비투자는 전년보다 11.4%나 감소시키고 이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98년 4/4분기중 크게 감소한 건설투자는 재정투자의 집중이 예상되는 99년 상반기중에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됨. 건설투자규모는 상반기중 약 10.3% 감소하겠으나 하반기에는 다소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6%내외의 감소에 그칠 전망이다.

* 정부는 연간 재정투자예산 30조원중 20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있음.

2. 물가

—98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차차 낮아지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세는 99년중 평균 2.1%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 99년중 환율변동폭이 작아지고 국제원자재가격과 임금 등 각종 비용요인이 안정되는 외에 전반적인 총수요압력도 크지 않아 물가상승압력은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 연중 환율은 1,250-1,150원/달러 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완만한 절상추세를 지속할 전망

○ 재고증감을 제외한 GDP규모는 전년수준을 유지 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수요는 물가상승압력보다는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

3. 수출입 및 국제수지

- 지난해 무역수지의 대폭적인 흑자에 힘입어 400억달러에 달한 경상수지 흑자는 올들어 1/4분기중 수출부진과 수입증가로 66.9억불(추정)에 그쳤으나 연간 흑자폭은 250억불내외에 달할 전망.
- 98년 411.6억불의 흑자를 기록한 상품수지는 올 1/4분기중 69.1억불(전년동기 97억불)로 줄었으나 연간 흑자규모는 270억불내외에 달할 전망. 이는 수출이 전년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가 14%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 GDP대비 경상수지는 98년중 13%수준에서 99년중에는 6%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지난 해의 수입급감(-36.6%)과 재고감소를 반영하여 99년 수입은 증가세로 반전되겠으나 증가율은 14%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수출은 원화환율이 절상추세로 반전하고 동남아, 일본, 중국 등의 수입수요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소수 주력품목의 수출신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수출회복세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임.

- 지난 해 큰폭으로 축소되었던 서비스 및 이전수지의 적자는 99년 중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규모는 지난 해의 11.3억불에서 올해 23억불내외로 10여억불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4. 금리 및 환율

가. 금리

- 최근까지 하향안정기조가 유지되면서 7%대로 하락한 실세금리(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는 99년 상반기중에도 별다른 상승요인 없이 하향추세를 유지할 전망. 이에 따라 국내조달금리가 해외조달금리를 하회하는 금리역전현상이 하반기중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지난 해 9월이후 정책당국은 통화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총수요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최근, 외환시장에서 엔화강세하에서 원화가 동반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 1,000원/100엔 수준을 중심으로 원/엔환율이 유지됨.

○ 단기금리를 포함한 시장실세금리는 외환시장안정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한, 당분간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또한 현재의 탄력적인 신용공급기조가 유지된다면, 시중실세금리는 연중 명목성장률 수준(6%내외)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정책당국은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보다는 금리인하를 통해 급격한 절상압력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율 및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외자의 유입증가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나. 환율

- 99년말 환율은 1,175원/달러 내외로 예상되며 연중에는 실질실효환율을 중심으로 변동하는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본원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균형실질실효환율은 지난 6개월간 평균 1,200원/달러 내외에서 변동하는 추이를 보임.

○ 대외신인도의 조기회복을 통해 외국인주식투자 한도의 철폐, 채권시장개방 등이 이루어지고 금융시장의 경색이 신속히 풀리는 경우, 원화환율은 99년중 일시적으로 균형 실질실효환율수준에 비하여 고평가될 가능성.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문제의 제기

- 최근의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지표상으로 경기회복세의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 작년 9월말 이후 긴축통화정책이 완화된 이후, 환율이 안정되고 한자리수 금리가 지속되며 최근에는 주가가 IMF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가격변수는 확연한 호전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전반적인 실물경제의 회복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특히, 투자를 비롯한 물량변수의 본격적인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난해 약 마이너스 40%에 달했던 투자위축이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전반적인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투자분위기를 회복시키는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되고 있음
 - 과거 고투자로 인하여 고부채비율이 초래되었다는 측면에서 투자조정이 필요하지만,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여야 하는 측면에서는 투자활동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긴요함
- 한편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정책을 꾸준히 전개

해오고 있음

○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개선하고,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을 완전 해소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조정 정책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이미 위축된 투자마인드를 더욱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업 재무구조 개선 정책이 민간투자의 위축에 미치는 효과를 가늠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기업 재무구조 개선 정책의 주요 내용과 거시경제 효과

가. 기업 재무구조 개선 정책의 주요 내용

1) 부채비율 200%의 달성

— 정부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부채비율을 연말까지 200% 이하로 낮추도록 유도

2)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 정부는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을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히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나. 기업 재무구조 개선노력에 수반되는 자금과부족 규모

1) 기업 재무구조 현황

- 5대 및 30대 대기업의 98년말 부채비율은 각각 335.0%, 379.8%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97년말 기준의 472.9%, 518.9%에 비하여 각각 137.9%p, 139.1%p가 개선된 것임

부채비율

단위: 조원

	5대 대기업		30대 대기업	
	97말	98말	97말	98말
자 기 자 본	46.8	70.0	68.9	96.6
부 채	221.4	234.5	357.4	367.0
부채비율(%)	472.9	335.0	518.9	379.8

주) 공정거래위 발표 기준, 금융·보험회사 제외

- 한편 상호지급보증 현황을 보면 5대 및 30대 대기업의 제한대상 채무보증 규모는 각각 3.7조원(98년 12월말), 26.5조원(98년 3월말)에 달하고 있음

채무보증 현황

단위: 조원

	5대 대기업		30대 대기업
	98.3말	98.12말	98.3말
채무보증 총액		6.3	60.7
채무보증 제한대상	11.1	3.7	26.5

주) 채무보증중 산업합리화, 수출 및 구조조정과 관련한 지급보증은 제한대상에서 제외

2) 기업 재무구조 개선노력에 수반되는 자금과부족 추정

- 98년말 부채비율은 자산재평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는 평가분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00%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97년말 기준의 부채비율을 99년말까지 200%로 축소하기 위해 98~99년중 30대 대기업의 필요 자금 소요액 및 예상 자금조달액을 추정하여 보면, 부채상환 및 상호지급보증 해소에 필요한 자금규모가 124.7조원인데 반해 예상 자금조달 규모는 84.9조원에 불과하여 98~99년중 자금 과부족 규모가 39.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예상 자금 과부족 규모(98~99년중)

단위: 조원

자금운용(A)	자금조달(B)	자금 과부족(A-B)
124.7	84.9	39.8

주) 자금조달(B) 가운데 48.9억원은 유상증자 및 대출금 출자전환에 의해 조달됨

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노력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부채상환에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비투자의 여력이 상실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9.2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민간투자가 7.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¹⁾

예상 30대 대기업 투자감축 및 민간투자 감소

1) 99년중 자금운영 규모가 부채비율 200% 달성 및 상호지급보증 완전해소라는 제약조건이 없을 경우 97년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기업들이 자금 과부족을 설비투자 축소로 보충하여야 하는 규모를 시산하여 보면, 99년중 설비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9.2조원의 감소가 예상됨

예상 투자감축	민간투자 감소
9.2조원	7.0%

주) 98년중 경상가격기준 민간투자액 132.2조원을 기준으로 계산

- 민간투자 감소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은 1.3%p 하락하고 실업률이 0.6%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예상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경제성장률	3.0	1.7 (-1.3)
실업률	8.1	8.7 (0.6)

주 1) 시나리오 I은 부채비율 200% 달성 및 상호지급보증 완전해소라는 제약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를, 시나리오 II는 동 제약조건이 부과되는 경우를 나타냄

주 2) ()내는 정상적인 경우에 대비한 증감 %p를 나타냄

- 더구나 대규모 유상증자와 자산매각이 실시된다면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예상되며, 자산효과(wealth effect)에 의해 민간 소비의 추가적인 감축이 예상됨. 이를 반영할 때는 추가적인 경제성장률 저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대응방안

- 최근 환율 및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가격 변수들은 IMF위기를 벗어나는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설비투자를 비롯한 물량변수의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통화정책의 경우에도 본원통화가 지속적으로 확대공급되고 있으나 민간에 대한 신용확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결국 실물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미미한 상태임
 - 통화공급확대로 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주로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으로만 연결되고 있음
- 따라서, 거시정책의 기조는 실물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특히 투자마인드의 복원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요구되고 있음
 - 부채비율 감축을 위한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권유
 - 재무구조 개선용 부동산, 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양도세의 감면 등 세제지원책 강구
- 기업의 경우에도 정부가 부과하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피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다는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됨
 - 금융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인수, 합병, 매각 등을 통한 사업구조조정으로 핵심역량을 결집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됨

<부록 1>경제정책정보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2/4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98. 12월중 통화정책방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장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통화를 계속 신축적으로 공급 필요 - 이에 따라 월중 공개시장조작은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콜금리의 하향안정화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연말의 계절적 자금 수요 증가와 재정집행의 집중에 따른 정부부문의 통화공급 증대 등을 고려하여 본원통화를 전월보다 확대 공급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
12/4	무디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원화표시 국제신용등급 Baa1으로 확정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a1은 외화표시 국제등급 Ba1보다 3단계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 국내 자산을 담보로 한 ABS 발행이나 외국인의 국내 원화표시 채권 매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
12/9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12월 만기도래 IMF 긴급보완자금(SRF) 상환결정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도래 금액 : 28억달러(12.18 18억달러, 12.30일 10억달러) - 내년 1월이후 만기도래분은 만기도래 당시의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12/14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유휴설비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내용 : 국내경기 침체로 유휴설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12.14일부터 국내 유휴설비 및 중고자동차 등 중고품수출에 대하여도 무역금융을 지원 ○ 한국은행, 은행의 2000년문제 비상계획 표준안 확정 및 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2일 각은행에 비상계획 표준안 통보및 12.15일 설명회 개최 · 비상계획수립 추진절차 단계별로 업무처리방법을 기술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에대한 대응방안을 예시 - 동 표준안을 참고하여 각행이 자체실정에 맞는 비상계획 초안을 99.1월말까지, 최종안은 99.6월말까지 수립토록 요청
12/18	금융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 정관 인가(시행일 : 9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감독원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 - 원장 1인, 부원장 4인이내, 부원장보 9인이내 및 감사1인, 전문심의위원1인을 둠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2/19	무디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을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심사대상(Review for Possible Upgrade)에 올려 놓았다고 발표 - 이에 따라 무디스의 국가신용평가팀이 내년초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방문결과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실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음 * Review for Possible Upgrade가 있을 경우 특별심사과정을 거쳐 통상 3개월이내에 상향조정여부가 결정됨
12/22	Fitch IB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을 국가신용등급 조정을 위한 긍정적 관찰대상(Rating Alert positive)대상에 올려 놓았다고 발표 - 조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사정의 개선 · 부실채권 정리후에도 OECD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부채수준 · 실물경제의 회복조짐 · 한국정부의 강한 개혁의지 - 향후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환경의 악화가능성 · 한국기업의 높은 부채수준 · 금융부문의 낙후성
12/29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감독규정 개정(시행일 99.1.1) - 금융기관의 금융채 발행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내' 에서 '100분의 100이내'로 확대 - 외화유동성비율 관리제도*와 단기외화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비율 관리제도**를 경영지도기준으로 제도화 *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비율 70%이상 유지 ** 외화자산 및 부채를 잔존만기에 따라 7개기간으로 구분 관리
12/30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전자입찰제도 도입 -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연결되어 있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 통하여 입찰공고, 입찰참가, 입찰결과 통보 등 전과정을 전산으로 수행 - 99.1월 첫 국채입찰시부터 실시
12/30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입찰에 있어서 내정금리 폐지 예고 - 정부는 국채인수기반 확충 및 유통시장 발전을 위해 99.7월부터 [국채전문딜러]제도 시행과 함께 국채입찰시 내정금리제를 폐지할 계획임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4	S&P사	○ 한국의 국가신용등급(BB+) 전망 상향조정 - 안정적(Stable) → 긍정적(Positive)
1/5	재정경제부	○ 98.11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현황(잠정) 발표 - 총대외지불부담 : 1,524.5억달러 - 총대외채권 : 1,325억달러 - 순외채(총대외지불부담- 대외채권) : 199.5억달러
1/8	한국은행	○ 99. 1월중 통화정책 방향 발표 - 1월중 공개시장조작은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콜금리를 약간 하향조정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운영하는 한편 본원통화를 은행의 대출자금 수요에 맞추어 공급하는 방향으로 운영
1/13	한국은행	○ [전자화폐 공동사업 추진계획] 확정 - 99년 상반기중 IC카드 시제품 생산 및 테스트 - 10월경 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실시 등
1/15	재정경제부 및 일본 대장성	○ 한국에 대한 단기자금 지원 합의 - [미야자와플랜]의 단기지원자금중 50억달러를 외화 유동성 부족 등 필요시 원-달러 스왑(swap)방식으로 한국은행에 지원
1/19	Fitch IBCA사	○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투자적격단계인 [BBB-]로 상향조정
1/20	한국은행	○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우대배정 대상에 포함 - 시행일 : 금융기관의 99.2월 대출실적이 반영되는 4월 배정시부터
1/25	S&P사	○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투자적격단계인 「BBB-」로 상향조정
1/25	금융감독원	○ 4개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중소기업 금융애로 대책반] 설치
2/1	한국은행	○ 한국수출입은행에 7,000억원 출자 실시 - 이번 조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 확대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지원하고, 자기자본을 확충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은 증자자금중 3,360억원은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출자자금으로 활용함.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2/1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수립·공표 - 기본방향 : 연중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물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용 - 물가안정목표 : 3%±1%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 M3증가율 목표 : 13~14%
2/4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 2월중 통화정책방향 발표 - M3가 연간 목표증가율(13~14%)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설 등 계절적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본원통화를 공급하되 재정의 조기 집행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동성 증가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적절히 조절함. - 콜금리는 금융시장에서의 자금흐름, 장단기시장금리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외환수급상황을 감안하여 하향안정화 기조를 견지함.
2/12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 12월말 현재 금융부문의 '2000년 문제' 해결 추진현황 발표 - 문제해결 진척도는 국내은행 99.2%, 증권사 96.3%, 보험사 97.6%, 중금사 99.4%, 리스사 94.6%, 신용카드사 95.7%, 할부금융사 97.6%, 신용금고 87.1%인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대부분의 대형금융기관은 고유업무와 관련된 핵심시스템에 대한 수정(교체) 및 자체테스트를 완료하였음
2/12	Moody's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단계로 상향조정 - 「Ba1」 → 「Baa3」
2/19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의 SRF(Supplemental Reserve Facility; 긴급보완금융) 자금 10억불(99.2.19일 만기도래분) 상환 결정
2/20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발표 - 전국어음부도율(금액기준) : 0.12% - 전국부도업체수(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 : 672개
2/23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금융센터] 설립방안 발표 -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의 정보를 적기에 수집·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금융연구원 부설기관으로 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추진 - 1999년 3월 정식발족할 예정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2/27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공시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사업연도가 1998.12.31일 이후에 종료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의 일반 공시서류와 감사종료 보고서에 대하여 1999.3.1일부터 전자공시를 시행함
3/1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책은행에 대한 건전성감독규정 제정(99.3.1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은행감독규정의 주요사항을 원칙적으로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거액여신 및 동일차주 여신한도의 경우 일반은행의 기준을 적용하되 급격한 한도축소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경과조치 등을 규정
3/5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 3월중 통화정책방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중 통화정책은 본원통화를 은행의 지준수요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공급하는 가운데 콜금리는 장단기 시장금리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
3/9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년도 수출입금융 확대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금융 재원 확충(15억달러),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할인 지원 확대, 수출입 금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기능 강화 등
3/12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검사규정 및 동 시행세칙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감독원 출범에 맞추어 각 금융영역별 검사관련 규정을 통합·정비
3/13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와의 99년도 제1차 정례협의(99.1.20~2.2) 의향서 주요내용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억달러 규모의 자금지원 승인 예정(지원예정액 210억달러중 91.7%인 192.5억달러가 인출되게 됨) - 이제까지의 분기별 협의를 반기별 협의(1월, 7월)로 전환 - 99년 거시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년 경제성장률은 2%(추가상승 가능), 물가상승률은 3%내외로 전망 ·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저금리정책 지속과 적자재정 실시 재확인 - 금융구조조정 및 건전성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건전성 규정을 적용할 것과 그외 중금사 손실처리 방법, 기업구조조정 여신의 분류방법, 부분보증제도 도입 등에 합의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3/17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안정대책자금] 만기 회수 방침 발표 -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대책](97.12.12)에 따라 13개 은행에 지원되었던 6조 2,370억원의 [금융시장안정대책자금]을 예정대로 99.3.17~29일중 전액 만기 회수 예정
3/18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출범 - 설립목적 :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Code of Best Practices)의 제정 - 구성 : 상장기업 전문경영인, 금융기관 대표, 법률·회계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14명 - 설치장소 : 증권거래소 - 활동기간 : 99.3~8월(6개월)
3/23	한국은행 및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결제부족지원자금 금리 인하 발표 - 한국은행이 97.11~12월중 국내금융기관에 지원한 긴급결제부족지원자금*에 대한 금리를 3.22일부터 Libor+6%에서 Libor+4%로 인하 * 총 지원액 232.9억달러, 99.2월말 현재 잔액 22.4억달러
3/27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 발표 - 기존 제도상의 미비점과 다른 건전성규제수단과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각 금융권역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3.26일 금감위 의결)

<부록 2>주요경제통계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연월	경제성장률		1인당 GDP US \$	소 비		투 자		
	GDP	제조업		민 간	정 부	총고정투자	설 비	건 설
	전년동기대비(%)		전년 동 기 대 비 (%)					
1993년	5.5	5.4	7,811	5.6	4.6	6.3	0.3	9.7
1994년	8.3	10.8	8,998	8.2	1.9	10.7	23.9	3.7
1995년	8.9	11.3	10,823	9.6	0.8	11.9	18.1	8.0
1996년	6.8	6.8	11,380	7.1	8.2	7.3	9.1	6.1
1997년	5.0	6.6	10,307	3.5	1.5	-2.2	-8.7	2.3
1998년	-5.8	-7.2	6,823	-9.6	-0.1	-21.1	-38.5	-10.2
1997년1/4	4.9	5.6	-	4.5	1.7	0.8	4.2	-1.9
2/4	6.2	7.8	-	4.4	2.5	2.2	1.3	2.9
3/4	5.5	7.9	-	5.3	2.3	-3.6	-12.6	2.7
4/4	3.6	4.9	-	-0.1	-0.4	-7.2	-25.9	4.5
1998년1/4	-3.6	-4.6	-	-9.9	1.3	-20.6	-38.3	-5.9
2/4	-7.2	-10.4	-	-11.2	-0.7	-23.7	-46.1	-7.8
3/4	-7.1	-9.1	-	-10.4	-0.6	-22.2	-39.3	-12.0
4/4	-5.3	-4.7	-	-6.9	-0.4	-17.9	-27.4	-13.7

무역 · 국제수지

연월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보유 액 ¹⁾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 품	경 상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원/달러	
1992년	766.3	6.6	817.8	0.3	-17.6	-39.4	171.5	788.4
1993년	822.4	7.3	838.0	2.5	23.2	9.9	202.6	808.1
1994년	960.1	16.8	1,023.5	22.1	-28.6	-38.7	256.7	788.7
1995년	1,250.6	30.3	1,351.2	32.0	-44.4	-85.1	327.1	774.7
1996년	1,297.2	3.7	1,503.4	11.3	-149.6	-230.1	294.2	844.2
1997년	1,361.6	5.0	1,446.2	-3.8	-31.8	-81.6	88.7	1,415.2
1998년	1,323.3	-2.8	932.8	-35.5	411.6	400.4		1,207.8
1998년7월	100.24	-15.1	70.9	-43.9	-38.8	38.1	392.6	1,236.0
8월	97.1	-12.1	71.2	-38.1	27.7	21.0	413.5	1,331.8
9월	107.5	-5.2	72.5	-37.2	36.9	36.9	433.7	1,373.6
10월	106.3	-14.7	76.5	-39.3	32.5	25.5	452.7	1,313.8
11월	116.7	-1.4	83.2	-28.9	31.9	30.4	464.7	1,243.7
12월	124.2	-0.1	86.5	-15.3	33.6	30.9	485.1	1,207.8
1999년1월	92.8	3.1	86.3	15.4	18.6	19.1	500.9	1,175.3
2월	94.2	-16.0	76.4	-3.1	24.4	23.4	519.6	1,222.4
3월	117.7	-1.9	93.4	12.8	-	-	544.5	-

주: 최근 데이터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96년 이후는 가용외환보유액

물가 · 실업 · 이자율

연 월	물 가 ²⁾		실업률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M2	MCT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1993년	1.5(2.0)	4.8(5.8)	2.8	10.9	18.6	22.9	12.6	728.2
1994년	2.8(3.9)	6.2(5.6)	2.4	15.5	15.6	23.5	12.9	965.7
1995년	4.7(3.4)	4.5(4.7)	2.0	9.9	15.5	21.6	13.8	934.7
1996년	2.7(3.5)	4.9(4.9)	2.0	12.2	16.2	21.7	11.9	833.4
1997년	3.9(10.9)	4.5(6.6)	2.6	5.2	19.2	15.3	13.4	654.5
1998년	12.2(3.6)	7.5(4.0)	6.8	-3.1	19.0	7.5	15.1	406.1
1998년9월	11.4	6.9	7.3	-10.6	21.0	5.4	12.5	312.2
10월	11.7	7.2	7.1	-0.7	26.4	6.1	10.0	358.8
11월	11.0	6.8	7.3	-0.9	26.1	5.2	9.6	429.2
12월	3.6	4.0	7.9	14.2	21.5	2.6	8.3	524.7
1999년1월	-1.8	1.5	8.5	-	26.3	3.1	7.9	597.6
2월	-4.3	0.2	8.7	-	30.0	5.3	8.6	533.0
3월	-4.3	0.5	-	-	-	-	-	-

주:2) ()는 전년말월대비증가율. 3)평잔기준

산업활동

연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 업	평균가 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⁴⁾	국내기 계수주 ⁵⁾	기계류 수입 ⁶⁾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전체	공업용	주거용
전년동기대비(%)										
1993년	4.4	77.9	8.5	3.9	12.1	1.1	19.3	24.5	15.2	26.7
1994년	10.9	81.3	8.7	9.3	26.9	37.6	18.5	-1.3	16.8	-8.5
1995년	12.0	81.0	8.0	7.4	15.8	31.5	24.4	1.0	3.3	-1.2
1996년	8.7	80.8	7.0	5.8	16.5	-0.7	21.4	-3.0	-13.2	-2.5
1997년	5.3	79.0	3.2	-1.8	3.3	-22.8	5.4	-0.4	-26.2	2.6
1998년	-7.3	68.1	-12.7	-21.4	-30.5	-52.9	-42.5	-55.0	-68.2	-50.3
1998년9월	-1.7	70.5	-11.6	-15.9	-14.6	-52.5	-50.4	-57.6	-61.9	-59.6
10월	-9.3	69.1	-13.2	-24.5	-25.4	-55.2	-52.2	-79.9	-74.2	-81.3
11월	0.3	69.6	-8.1	-18.8	-5.1	-38.7	-35.7	-57.7	-50.5	-47.8
12월	4.8	71.1	-3.6	-11.4	0.9	-34.3	-45.2	-61.6	-51.0	-61.2
1999년1월	14.8	69.6	2.6	7.8	39.6	7.3	-20.5	-56.4	2.2	-67.1
2월	4.0	69.9	7.3	11.9	-1.0	-12.7	-52.2	-50.5	30.0	-
3월	-	-	-	-	-	-	-	-	-	-

주: 4)내수용 5)내수용, 선박제외 6)94년이전 수치는 선박제외